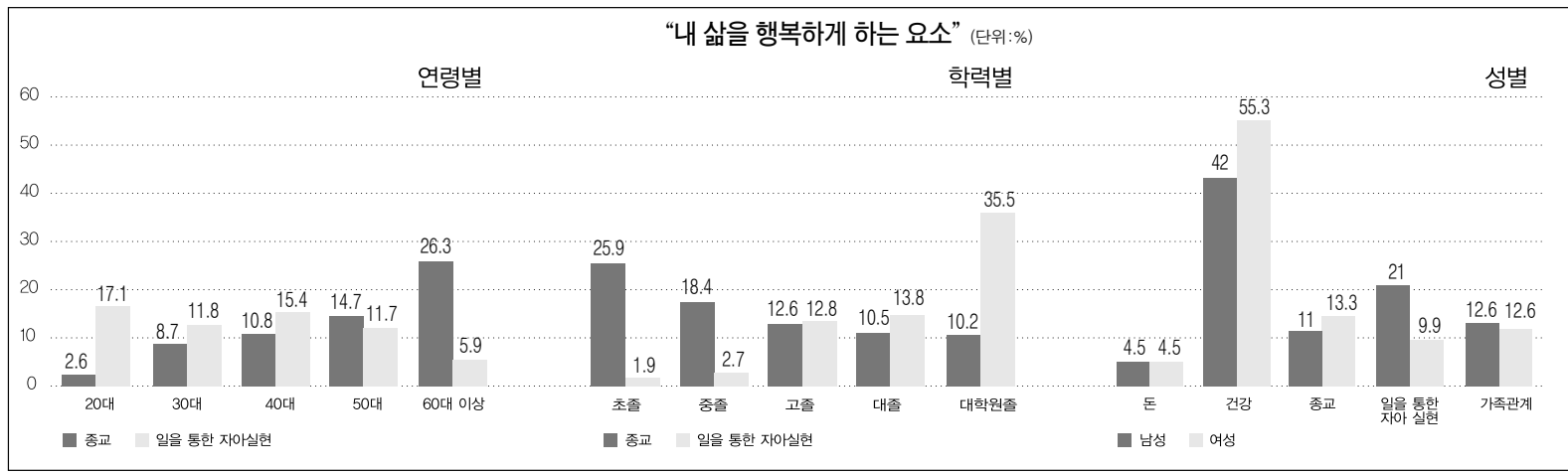




'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'



“깨달음 확산” 연령·신행경력에 비례

연령별 분석-삶 만족도에도 세대차

세대간 격차와 학력별 또는 성별 등 주어진 여건에 따라 불자들의 의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.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20~30대는 10% 미만이 행복 요건으로 '종교'를 꼽은 반면,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14.7%와 26.3%로 높게 나타났다.

우선순위에 있어서도 20대는 건강 자아실현 돈 가족 명예에 이어 종교가 6위에 그쳤지만 60대 이상은 건강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.

삶의 만족도를 묻는 다른 문항에서 50대 이상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하면, 종교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.

범위를 좁혀 불교만 놓고 보더라도 20~30대 보다 50대 이상이 종교적인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불교가 자신의 삶에 '다소 영향을 미친다'는 응답이 가장 많은 20~30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'많은 영향을 미친다'는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.

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특징은, '현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'라는 질문에 대해 '그렇다'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29.1%, 40대는 42.3%, 60대 이상은 56.4%로 나온 점이다.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해 중·장년층의 믿음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확인된 결과라 하겠다.

성별 분석-여성이 남성보다 종교 중시

종교를 행복요소로 꼽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편차는 상당했다. 남성은 건강(42.0%), 일을 통한 자아실현(21.0%), 가족관계(12.6%)에 이어 네 번째로 종교(11.0%)를 꼽았지만, 여성은 건강(55.3%), 종교(13.3%), 가족관계(12.6%), 자아실현(9.9%) 순으로 선택했다.

이같은 결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교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. 남성은 자신의 삶에 불교가 '다소 영향을 미친다'는 응답이 44.3%로 가장 많았지만, 여성은

48%에 달하는 인원이 '많은 영향을 미친다'고 답했다.

그러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왔다. 전체적으로 '만족(6~10)'이라는 응답이 59.5%인 여성보다 남성이 62.9%로 약간 높았다. '불만족(0~4)'이라는 응답도 남성이(10.6%)가 여성(8.7%)보다 높게 나타났다.

불교를 믿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(41.2%)과 여성(31.3%)이 모두 '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'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으로 남성은 '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'(22.3%), 여성은 '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'(28.3%)라는 항목을 꼽았다.

학력별 분석-학력과 삶 만족도 반비례

학력은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한 결과가 나왔다. 학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이다. 그러면서도 학력이 낮은 이틀(초졸 38.9%)보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(대학원졸 55.9%)으로 조사됐다.

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초졸은 11.1%로 다른 학력에 비해 가장 높은 대신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. 반면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4.5%, 3.4%에 머물렀다. 이는 고학력자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로 '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'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추측된다. 대학원을 졸업한 불자들은 52.5%가, 대졸자는 35.7%가 '삶의 가치'에 무게를 뒀다.

또 이 문항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저학력 불자들이 고학력자에 비해 기복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. 초졸과 중졸 9.3%와 11.6%가, 대학원졸은 3.4%가 '나와 가족의 복을 구하기 위해'를 불교를 믿는 이유로 꼽았다.

저학력의 불자들은 고학력자에 비해 행복요소로 '종교'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, 고학력자일수록 '종교'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. 초졸은 25.9%가 두 번째로 '종교'를 꼽았지만 대졸은 10.5%로 4위에 그쳤다.

기타 교차분석-신행경력 많을수록 종교 우선

'불교를 믿음으로써 삶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가'라는 질문에 85.6%가 긍정적으로 답해 불교신행이 실제 삶의 만족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삶의 만족도(0~10점)에서 가장 낮은 '0'을 꼽은 불자들은 '불교를 믿음으로써 삶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가'는 질문에 '자주 그렇게 느낀다'는 응답이 27.6%에 그쳤다. 그러나 같은 질문에 대해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'10점' 만점을 선택한 불자들의 경우 65.8%가 '자주 그렇게 느낀다'고 답해 거의 3배에 육박했다.

신행경력과 관련해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행복요소로 종교를 꼽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5년 미만의 신행경력을 갖고 있는 불자들은 7.5%만이 '종교'라고 답한 반면, 30년 이상의 불자들은 17.2%에 달해 2배 이상 많았다.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5년 미만의 불자들은 '건강'(54.4%), '가족관계'(17.2%), '일을 통한 자아실현'(12.2%)에 이어 네 번째로 종교를 꼽았지만, 10년 이상의 불자들은 모두 '종교'를 '건강'에 이어 두 번째로 선택했다.

'현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'라는 질문에서도 '그렇다'는 응답자가 5년 미만 34.7%, 10년 미만 41.6%, 15년 미만 50.4%, 20년 미만 47.7%, 30년 미만 48.4%, 30년 이상 50.5%로 신행경력이 많을수록 높은 수치를 보였다. 신행경력이 많을수록 '깨달음'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. 다만, 10~15년 경력자들이 높게 나타난 점은 신도회 활동 등 신행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자신의 삶이 불교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스스로의 수행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주는 특징도 나타났다. '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가'를 묻는 질문에 '그렇다'고 답한 응답자들은 83.5%가 '용맹정진'과 '비교적 열심히 수행한다'고 꼽은 반면, '자부심 못 가진다'는 응답자들은 75%가 '수행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'라고 답변했다.

한영우 · 박봉영 · 유철주 · 김강진 기자

본지조사 재가불자 '행복지수' 설문과 응답

- 귀하의 나이는?
①20대 117.7% ②30대 25316.6% ③40대 57237.6% ④50대 39525.9% ⑤60대 이상 186122.2%
- 성별은?
①남성 125.0% ②여 114275.0%
- 학력은?
①초등졸 5433.5% ②중졸 14719.7% ③고졸 68945.2% ④대졸 57437.7% ⑤대학원졸 5933.9%
-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?
①서울 26217.2% ②경기 27718.2% ③강원 785.1% ④충청 1318.6% ⑤경상 63841.9% ⑥전라 1067.0% ⑦제주 312.0%
- 신행 햇수는?
①5년 미만 54836.0% ②10년 미만 33221.8% ③15년 미만 25016.4% ④20년 미만 17211.3% ⑤30년 미만 1288.4% ⑥30년 이상 936.1%
- 불교 입문 동기는?
①자발적으로 62841.2% ②가족의 권유로 19612.9% ③주위(친구 등) 권유로 21814.3% ④가족 신앙이므로 37724.8% ⑤책이나 신문 등에서 불교관련 내용을 보고 573.7% ⑥기타 473.1%

1.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.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신다면 어떤 것입니까?
①돈 684.5% ②명예 191.2% ③건강 7252.0% ④종교 19412.7% ⑤일을 통한 자아실현 19312.7% ⑥가족 관계 19212.7% ⑦친구 관계 90.6% ⑧기타 432.8% ⑨무응답 130.8%
2. 지금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를 만족하십니까? (0점부터 10점까지)

불만족	만족	매우 만족									
점수 0	1	2	3	4	5	6	7	8	9	10	
응답자	291.9%	140.9%	130.9%	291.9%	533.5%	4643.5%	17211.3%	25616.8%	25516.7%	16510.8%	734.8%

- 2-1. (2번 질문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에 한해) 그 만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?
①돈 72.9% ②명예 10.4% ③건강 4920.6% ④종교 7129.8% ⑤일을 통한 자아실현 3916.4% ⑥가족 관계 5422.7% ⑦친구 관계 0 ⑧기타 135.5% ⑨무응답 41.7%
- 2-2. (2번 질문에서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에 한해) 그 이유는 아래 항목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?
①돈 1330.2% ②명예 24.7% ③건강 49.3% ④종교 49.3% ⑤일을 통한 자아실현 37.0% ⑥가족 관계 0 ⑦친구 관계 0 ⑧기타 37.0% ⑨무응답 1432.3%
3. 불교가 자신의 현재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?
① 많은 영향을 미친다 70846.5% ② 다소 영향을 미친다 60739.9% ③ 거의 영향이 없다 795.2%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30.8% ⑤ 잘 모르겠다 1067.0% ⑥ 무응답 100.6%
4. 불교를 신봉하기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?
① 아주 많다 26917.7% ② 많이 73148.0% ③ 보통이다 43928.8% ④ 적은 편이다 483.1% ⑤ 오히려 211.4% ⑥ 무응답 151.0%
5.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까?
① 그렇다 1097.2% ② 대체적으로 그렇다 42527.9% ③ 보통이다 36323.8% ④ 아예는 미흡하다 59539.1% ⑤ 자부심 못 가져 161.0% ⑥ 무응답 151.0%
6. 지금 귀하의 입장에서 불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?
①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 31820.9% ②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51333.7% ③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38725.4% ④ 불교를 통해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1066.8% ⑤ 나와 가족의 복을 구하기 위해 1519.9% ⑥ 기타 342.4% ⑦ 무응답 150.9%
7. 계율을 잘 지키는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그렇다 124181.5% ② 아니다 533.4% ③ 모르겠다 20713.7% ④ 무응답 221.4%
8. 귀하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계율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매우 잘 지킨다 1499.8% ② 약간 지키는 편이다 8485.8% ③ 그렇다 32621.3% ④ 거의 지키지 못한다 16610.9% ⑤ 전혀 지키지 못한다 171.1% ⑥ 무응답 171.1%
9. 지금 내 삶에 수행을 하고 계시다면 그 수행을 통해 어떤 계율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① 그렇다 64642.4% ② 아니다 21814.3% ③ 모르겠다 62541.0% ④ 무응답 342.3%
10. 자신의 일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한다면?
① 용맹정진하면 704.6% ② 비교적 열심히 41707.4% ③ 평균 수준으로 45129.7% ④ 다소 게으른 편 31420.7% ⑤ 수행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25616.7% ⑥ 무응답 160.9%
11. 그 간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?
① 그렇다 91460.0% ② 아니다 785.1% ③ 모르겠다 51233.8% ④ 무응답 191.1%
12. 불교를 믿음으로써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?
① 자주 한다 48431.8% ②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 81953.8% ③ 없다 5933.9% ④ 모르겠다 1429.4% ⑤ 무응답 191.1%
13. 불교를 믿기 시작한 이후 어떤 이유로든 실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?
① 자주 있었다 926.0% ② 여러 번 있었다 64042.0% ③ 얼마 55636.5% ④ 잘 모르겠다 20913.8% ⑤ 무응답 261.7%
- 13-1. (13번에서 실망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) 그것이 내 자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?
① 불교공부에서 진전이 없을 때 12116.7% ② 의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7810.6% ③ 계율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서 17624.0% ④ 교리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7310.7% ⑤ 수행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(스승)이 없어서 8111.1% ⑥ 기타 8812.0% ⑦ 무응답 11515.7%
- 13-2. (13번에서 실망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) 그것이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?
① 집에서 이것저것 요구가 많을 때 709.6% ② 어떤 어떤 이유로 스승에게 실망했을 때 15721.4% ③ 어떤 어떤 이유로 스승에게 실망했을 때 16322.3% ④ 불교의 대사회 활동이 저조할 때 10113.8% ⑤ 불교계 내분일 때 10113.8% ⑥ 기타 37.5% ⑦ 무응답 10314.1%
14. 그 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, 불교의 가르침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?
① 많은 도움이 됐다 67044.4% ② 약간 도움이 됐다 62140.8% ③ 별로 도움이 안됐다 412.8% ④ 전혀 도움이 안됐다 130.8% ⑤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432.9% ⑥ 잘 모르겠다 1066.9% ⑦ 무응답 291.8%
- 14-1. 생활에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?(두 가지만 체크하세요)
① 기도한다 85138.9% ② 스승과 상담을 한다 40418.7% ③ 법문을 듣는다 1737.9% ④ 불사리를 염오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1878.6% ⑤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한다 32814.9% ⑥ 존경하는 은사나 지인을 찾아 자문을 구한다 1074.8% ⑦ 술이나 유혹으로 푸는 편이다 703.1% ⑧ 없었다 331.5% ⑨ 무응답 361.6%
15. 귀하께서 비교적 자주 선호하고 있는 수행(수행)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? (두 가지까지 가능)
① 참선 32513.4% ② 포교 341.4% ③ 봉사활동 27411.3% ④ 괴리공부 1707.0% ⑤ 법회 참석 46919.4% ⑥ 상제전 1496.1% ⑦ 향약장전 391.6% ⑧ 기도·염불 43711.8% ⑨ 율법 33213.7% ⑩ 사경 923.8% ⑪ 기타 532.3% ⑫ 무응답 461.9%

시멘트

서가래에서 포작까지 고건축자재 판매

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스승께서 진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.

자재일체판매
설계에서 회사 시공까지
기술지원 일괄까지

생산품목 : 서가래, 부연, 초역공, 이익공, 계가차, 외삼포작, 외삼포, 내외포작, 외외포/내철포작 등 범람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

법당, 요사채, 일주문, 종각

흥내는 별수있어도 금과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

축

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

현대불교와 함께해온 한국불교건축공예, 성불공예도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
불교건축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

한국불교건축공예 · 성불공예

공중대표 장춘식 박경남 합창

목조

취목에서 시공까지

시공사 한국불교건축공예 제작사 성불공예
본사 및 공장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버리 205번지
대표전화 031-336-6242

시공 및 납품실적 ● 전등사 ● 지장사 ● 장안사 ● 영암사 ● 정법사 ● 안정사 ● 여여정사 ● 해관사 ● 만불사 ● 송계사 ● 법혜사 ● 천영사 ● 보관사 ● 육정사 ● 두계사 ● 묘각사 ● 용주사 ● 원각사 ● 각화사 ● 삼덕사 ● 쌍용사 ● 죽림정사 ● 감로암 ● 법성사 ● 묘원사 ● 반야암 ● 금성사 ● 북악팔각정 등 100여 곳 그 동안 배풀어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.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